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는 기호품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의 의지로 담배를 피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또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담배는 자유로운 기호품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피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는 건강에 나쁜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그만둘 수가 없을 정도로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호기심인지, 다른 이유인지로 담배를 피우게 되서 그만둘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에는 환각 성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일부 청소년이 담배를 피웁니다. 청소년기부터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만든 담배에 인간은 얽매여서 죽을 때까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금연을 강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TV에서 담배광고를 방송할지 말지는 방송국의 이해관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광고를 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안피우는 사람, 모두 자신의 의지로 사고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기때문에, 충분한 설득력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도, 흡연의 금지는 아무래도 정당화 될수 없겠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지만, 자신과 남의 건강을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은 담배를 조금 피우는 것이 좋습니다.